

17년 만에 '제1차 요한복음 연수' 개최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그룹 성서 모임, 김선미 수녀 지도로 28명 수료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제1차 요한복음을 마치고 연수자들이 수료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메릴랜드】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주임 김중옥 미카엘 신부)의 그룹 성서 모임은 김선미 아가다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를 초청해 '제1차 요한복음 연수'를 지난 2일(토)부터 3일(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1999년 그룹 성서 모임이 시작된 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뜻깊은 행사다.

“예수님께서 공생함을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라는 첫 질문은 일상의 노예가 되어 삶의 목적과 본질을 모르는 우리에게 깊은 삶의 본질을 깨치게 하는 물음이라며 요한 복음연수를 통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예수님께 머물고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하기를 바란다”며 강의를 시작한 김선미 수녀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앙고백서이며 독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느님께서 흠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세상이 변화되도록 영향력을 시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자직분과 ‘예수님이 사랑한 것 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란 새 계명처럼 사랑하는 것이 제자조건임”도 설명했다.

강희용 카타리나 대표 봉사자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를 청하며 주님의 특별한 은총과 주님이 만들어 주신 이 시간에 감사한다.”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날 수료증을 받은 워싱턴 제1차 요한 그룹 연수자는 총 28명이다.

기사/사진 제공: 백승자 소화대레사

주님 자비하심과 성령을 온 몸으로 느끼다

동중부 성령 쇄신 봉사회, 자비주일 맞이해 '열린기도회' 개최



동중부 성령쇄신 봉사회가 개최한 '열린기도회'에서 한 참가자가 체험담을 발표하고 있다.

【메릴랜드】 동중부 성령쇄신 봉사회(지도신부 이명상 아우구스티노, 회장 최옥진 데레사)는 지난 3일(일) 하느님 자비주일을 맞이해 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성당에서 '열린기도회'를 가졌다. 동중부 각 본당의 성령기도회원과 신자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열린기도회는 하느님 자

비와 성령 신심을 온 몸으로 느끼는 기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비의 특별히년 중 자비주일에 함께 모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의 은총에 찬양을 드리며 시작한 1부에서 최옥진 회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 성령을 보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성령강림 대축일이다.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 사랑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의 삶과 관련된 체험담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체험담을 나누며 신앙 속에서 주님의 현존과 나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렸고, 봉사회는 열린 기도회에 초대된 13명의 새 영세자에게 자비의 예수성심상분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자비의 기도를 노래로 함께 봉헌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다.

동중부 성령쇄신 봉사회는 오는 5월 29일(일)부터 30일(월)까지 이틀 동안 제8차 동중부 성령대회와 3박 4일 일정의 봉사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사진 제공: 백승자 소화대레사

서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 만들어가자

최기홍 신부, 오클랜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부임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신부가 오클랜드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에 부임해 취임미사 및 부활대축일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신부(순천교구)가 오클랜드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주임으로 3월 27일(일) 부임하여 취임미사 및 부활절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다.

다. 최기홍 신부는 2000년 1월 25일 사제서품을 받은 후 후평동과 흥천 성당 보좌를 거친 후 2004년 유학, 영국에서 '교회와 미디어'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소양동 주임신부와 춘천교구 문화홍보부 국장을 겸임했다.

최 신부는 북유럽의 가을, 겨울에 낮은 일조량으로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건강뿐 아니라 불안, 불확실성, 걱정 등 심리적으로도 우울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과 삶의 빛이시니 절대로 그 빛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님 만찬 성 목요일 미사에서 최 신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제로 살아가겠다. 섬김의 자세로 교우들과 함께 섬김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다. 형제자매님들끼리 서로서로 위하고 섬김시다.”라고 말하며 “성당에는 항상 가볍고 기쁜 발걸음으로 오길 바란다.”고 했다.

부활절 미사 후 신자들은 친교실에서 각 구역이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며, 최기홍 신부와 함께 나누고 섬김의 기쁨을 나누었다.

기사/사진 제공: 천종욱 다니엘

어른부터 아이까지 함께한 긍정적인 선교의 장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성당 '전신자 체육대회' 이웃 성당에서도 참가

【조지아】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성당(주임 이재욱 요한 신부)은 부활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전신자 체육대회'를 지난 3일(일) 오후 2시부터 노크로스 럭키 쇼스 파크(Norcross Lucky Shoals Park)에서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체육대회는 150여 명의 신자가 참여했고, 10대부터 60대까지 함께 모여 한 팀을 이루는 화합과 친교를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성당 '전신자 체육대회'를 시작하며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재욱 신부의 지도로 시작된 체육대회에서 남자는 족구, 여자 신자들과 아이들은 피구게임을 하며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역별로 8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족구대회는 열띤 접전 끝에 마리아타 2구역팀이 인타운팀을 이기고 작년에 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더욱이 이번 대회는 둘루스 성 김대건 성당(주

임 류충렬 대건 안드레아 신부)에서 한 팀이 출전해 푸짐한 상품을 받았고, 이어진 바베큐 식사를 함께하며 친교를 나누었다.

나장섭 베네딕토 준비위원은 “아무런 부상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이

번 대회를 마칠 수 있어 주님께 감사드리고,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함께할 수 있어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선교의 장이 된 것 같아 좋았다.”고 자평했다.

기사/사진 제공: 허성일 가를로